

숲의 도시 마니와

마니와에는 삼림이 토지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임업, 제재업이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 세기 후반에는 상용 목재인 삼나무, 편백나무, 소나무 등을 심는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30 년대 후반까지 마니와는 일본 주부 지방에서 목재의 주요 공급 거점이 되었습니다.

목재 대부분은 건설에 사용됩니다. 일본 건축에서는 전통 양식, 현대 양식 모두 최소한으로 설계하고, 재료로는 가벼운 것을 사용하며 실내외를 구분하는 외벽을 투과성이 있는 것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건축에서 목재는 항상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목재는 보기에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유연성이 좋고 가벼우면서 잡아당기는 힘에 견디는 힘이 뛰어나며, 전기 저항성과 내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1970 년대, 저렴한 가격의 수입 목재와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따라 일본의 임업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니와에서는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얻은 목재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하는 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크로스 래미네이티드 팀버(CLT)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이 건물은 1990 년대 중반에 유럽에서 개발된 CLT 의 매력과 범용성을 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CLT 의 제조 공정에서는 여러 개의 나무판자를 직각으로 교차하도록 쌓고 접착해서 큰 목재 패널을 생산합니다. 완성품은 표준적인 목재 패널 재료와 비교했을 때 안정성, 내화성, 단열성이 뛰어나며, 나무 본연의 자연스러운 색상과 나뭇결도 남아 있습니다. CLT 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어져 콘크리트를 대신하는 친환경적인 재료입니다.